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인간 이해와 교육적 함의

정영찬(개혁교육연구회) *

논문초록

칼뱅(John Calvin)은 종교 개혁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은 후대 개혁주의와 개혁파교회(또는 장로교회)의 신학과 세계관의 뿌리가 되었다. 특히 그가 남긴 대표적인 저작인 기독교강요는 23년간에 걸쳐서 증보 편집되었는데, 그의 신학과 사상이 가장 잘 반영되었다. 칼뱅은 기독교강요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창조된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한다. 그리고 죄로 인해 타락하였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어서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존재이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간임을 소개한다. 모름지기 교육은 인간의 성장을 위한 형성적 활동(a formative activity for human growing)이기에 인간에 대한 이해는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철학적 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개혁주의적 관점으로 교육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칼뱅의 인간 이해는 매우 유익한 기초가 될 것이다.

주제어: 칼뱅, 기독교강요, 인간론, 개혁주의, 교육

〈 목 차 〉

- | | |
|------------------------------|---------------------------------|
| I. 들어가면서 | IV.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인간 이해와 교육적 함의 |
| II. 『기독교 강요』 구성과 칼뱅의 인간론 이해 | V. 결론 및 요약 |
| III.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뱅의 인간 이해 | 참고문헌 |

I. 들어가면서

종교개혁은 그 전후로 사람들의 의식(意識, consciousness)이나 생활, 사회의 모습 등에서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기에 교회와 일반 역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던 매우 의미 있었던 일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유산 중에서 칼뱅(John Calvin)이 남긴 저작인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후로는 *Inst.*로 표기함)는 기독교 사상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꼽히기도 한다(신복윤, 2005: 48). 이 책은 칼뱅이 26세였던 1536년 4월¹⁾ 스위스의 바젤에서 라틴어로 처음 출판되었

* 교육학박사(Ph. D., 기독교교육전공, 고신대학교), 진주 후세대교회 담임목사이며, 기독교사단체인 하나님

고²⁾, 3년 뒤인 1539년 8월에 역시 라틴어로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내용이나 부피가 늘어난 2판이 출판되었으며, 1541년에는 2판을 그의 모국어인 프랑스로 제네바에서 번역하여 출판하였는데, 이 작품은 철학이나 윤리와 같은 영역을 프랑스로 다룬 첫 작품이었으며 문학적 탁월성에 있어서도 프랑스 산문사에서 경계선을 긋는 획기적인 저작물이었다(John T. McNeill, 1991: 145). 이어서 1543년에 장수가 좀 더 늘어난 라틴어 3판이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출판되었고, 1545년에는 라틴어 3판이 같은 곳에서 재판되었으며, 제네바에서는 프랑스로 번역 출판되었다(프랑스어 2판). 이후 1550년에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각 장마다 절을 세분하였고 내용도 좀 더 첨가하여 라틴어 4판과 이듬해인 1551년에 프랑스어 번역 3판이 나왔다. 1550년부터 1557년까지 라틴어판과 프랑스어판은 무려 7판이나 제작될 만큼 불티나게 판매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559년에 라틴어 5판과 1560년에 프랑스어 4판이 결정판으로서 출판되었다. 이처럼 기독교 강요는 23년간 끊임없이 개정되고 번역되었지만 신앙과 사상의 내용에 있어서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칼뱅의 계속되는 분투와 연구와 경험을 통하여 지혜가 더욱 풍부해지고 성경에 관한 지식이 깊어졌음이 드러난다. 이는 새로운 판이 거듭될 때마다 새로운 인용문들이 제시된 것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신복윤, 2005: 50-60).

이상과 같은 역사 속에서 완성된 칼뱅과 기독교 강요의 영향은 이후 칼빈주의(Calvinism) 또는 개혁주의(Reformed), 개혁교회(Reformed church) 등의 태동과 발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그 범위 또한 전 세계로 확장되었고, 이들의 사상과 학문과 교회와 개인적 삶의 형성 등에서 가장 주도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칼뱅의 대표적 저작인 기독교 강요 속에 나타난 인간에 관한 이해를 조망함으로써 교육적 함의를 찾고자 함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개혁주의 교육이나 학교를 논함에 있어서 칼뱅의 기독교 강요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자료이며, 교육이 인간의 형성적 활동(a formative activity)임을 전제한다면 인간에 대한 이해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배경 중의 하나이기에 본 글의 의미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먼저, 기독교 강요의 구성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간략히 살펴면서 인간의 이해에 대한 사적(史的)인 고찰과 함께 칼뱅의 인간론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사를 다룬 뒤에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³⁾을 중심으로 칼뱅의 인간 이해를 집중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여기

의 교사들(GT)의 대표로서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 기독교사운동과 기독교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1) 신복윤은 기독교 강요의 초판이 1536년 4월이라고 표기하지만, 장수민(2010: 229), 김재성(2003: 99), Jhon T. McNeill(1991:137) 등은 1536년 3월이라고 소개한다. 이 글에서는 신복윤이 포함된 역자들에 의해 번역된 기독교 강요를 주로 참고했기에 그의 주장에 따라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2) 기독교 강요 초판의 원래 제목은 당시 책의 성격을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면서 읽기를 권하기 위해 길게 붙였던 풍습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우 길었다. 『기독교 강요, 경건의 총체와 구원의 교리에서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을 거의 모두 포함했다. 경건에 열성 있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가치가 있는 책으로 최신판임』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 totam fere pietatis summam, et quidquid est in doctrina salutis cognitu necessarium, complectens: omnibus pietatis studiosis lectu dignissimum opus, ac recent deitum*)(장수민, 2010: 229).

3) 이 글에서는 1559년 라틴어 5판을 영어로 옮긴 것을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등이 공역한 다음의 책을 사용할 것이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서울: 생명의말씀사, 1995).

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 타락이후 심각하게 훼손되었지만 은혜의 빛 아래에서 여전히 일부의 재능을 가진 인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등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적 함의를 정리하고 개혁주의적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I. 『기독교 강요』의 구성과 칼뱅의 인간론 이해

칼뱅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제목으로써 기독교 강요의 첫 장을 시작한다(*Inst.*, I. 1.). 이러한 사실은 처음 출판될 때부터 줄곧 이어져왔던 것으로써 칼뱅의 인간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이다. 여기에서는 기독교 강요가 23년간 개정되고 보완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에 대한 내용을 라틴어판을 중심으로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칼뱅의 인간론에 관한 연구사를 간략하게 정리할 것이다.

1. 『기독교 강요』의 구성과 인간론의 위치

(1) 1536년 초판(라틴어)

칼뱅은 기독교 강요의 초판(1536년)을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란시스에게 바치는 헌사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모두 6장의 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장수민, 2010: 249-65).

1. 십계명 해설을 포함하는 율법에 관하여
2.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신조가 설명하는 믿음에 관하여
3. 주기도문이 해설하는 기도예에 관하여
4. 성례에 관하여
5.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성례와 관련이 있다고 여기던 나머지 다섯 가지는 성례가 아니라고 선언한다. 이제 그 근거를 제시한다.
6. 기독교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와 정치 시행에 관하여

이상의 1장 율법에 관한 내용의 첫 서두를 “거룩한 교리의 대부분은 다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John Calvin, 1994: 69)라고 서술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을 1장의 1, 2절로 자연스럽게 배치하였다. 이는 칼뱅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가장 본질적인 고민이었음을 엿보게 하는 부분이다. 특별히 칼뱅은 자신의 회심 직전에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 질문의 첫째 내용은 이교(미신)와 기독교(참된 종교)의 차이점에 대하여, 둘째로는 인간 영혼의 기원과 성격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

치와 인간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적 틀 속에서 인간 권위의 위치에 관한 질문 등이다.⁴⁾ 이후 회심을 통하여 그는 참다운 인간의 본질과 실존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파악되며 형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직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죄인 사이의 간격을 연결할 수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다. 이렇게 참다운 인생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알게 되었기에 기독교 강요의 첫 부분을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 시작을 한 것이다. 물론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도 이러한 두 가지 지식⁵⁾에서 비롯되었기에 참다운 인생이라는 주제는 칼뱅과 기독교 강요의 저작동기에서 결코 약화시킬 수 없는 원천적인 영역이다(John Calvin, 1994: 33). 조성국은 칼뱅에게 있어서 경건과 신앙과 종교는 거의 동일시되거나 나란히 사용하는 용어으로써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포괄적인 태도로 규정하며, 기독교 강요는 경건에 대한 상세하고도 체계적인 서술이라고 밝혔다(조성국, 2003: 242-44).

(2) 1539년 제 2판(라틴어)

기독교 강요가 처음 출판되자 1년이 지나지 않은 시간에 매진되어 재판을 찍어야 할 형편이 되었다. 하지만 제네바에서의 사역으로 인해 문필활동이 여의치 않다가 시의회와의 갈등이 발생하여 1538년에 추방되어 스트라스부르그로 옮겨온 뒤 기독교 강요의 증보된 개정판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이듬해인 1539년에 초판에 비해 분량이 약 3배 정도 늘어난 모두 17장으로 된 2판⁶⁾을 출판하게 되었다. 그 증보판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장수민, 2010: 377-78).

1.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하여
2. 인간에 대한 지식과 자유의지에 관하여
3. 율법에 관하여: 십계명 강해
4. 믿음에 관하여: 사도신경 강해
5. 회개에 관하여

4) 이 내용은 1536년 라틴어 초판을 영역한 배틀즈(Frd Lewis Battles)가 자신의 영역판 서론에서 밝혔고, 양낙홍이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였다. 양낙홍 역(1994). 『기독교 강요(초판)』(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p. 27.).

5) 칼뱅은 최종판에서 이 두 가지 지식을 묶어서 ‘경건’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외(敬畏)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발생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개념이다(*Inst.*, II. 2. 1). 여기서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엄숙하면서도 자발적인 두려움과 성경에 규정된 정당한 예배를 포함하는 신앙을 의미한다(*Inst.*, II. 2. 2).

6) 이 판부터 책의 이름을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 제서야 드디어 제목에 정말 어울리는’이라는 말을 덧붙였으며, 이 책을 프랑스어로 보급할 목적과 로마 카톨릭 지역에 배포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Alcuinus’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장수민, 2010: 376). 또한 독자들을 위한 서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원하는 신학 후보생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저술되었다는 말을 기록함으로써 단순한 기독교교리의 설명이 아니라 보다 깊은 수준과 넓은 범위를 다루기 시작했음을 알린다(John T. MacNeill, 1991: 144-45).

6. 이신 칭의와 행위의 공적에 의한 칭의에 관하여
7.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관하여
8.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9. 기도에 관하여
10. 성례에 관하여
11. 세례에 관하여
12. 주의 만찬에 관하여
13.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14. 교회의 권세에 관하여
15. 정치의 시행에 관하여
16. 다섯 가지 거짓 성례에 관하여
17. 기독교인의 삶에 관하여

이 때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되 맨 앞 쪽에 배치함으로써 그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3) 1543년 제 3판(라틴어)

제네바에서의 사역 복귀 요청으로 인해 칼뱅은 스트라스부르그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1541년에 돌아간 뒤 1543년에 세 번째로 증보 개정판을 집필하여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출판한다. 이것은 2판에 비해 4장이 더 늘어나 모두 21장에 달하는 분량이었지만 내용면에서는 당시 수도원제도의 주요 의식이었던 ‘서원’에 관한 주제를 율법과 믿음 사이에 배치하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후에 ‘인간의 전통’에 관한 내용을 새로 첨부하였으며,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을 믿음에 대한 내용 이후에 별도의 3장으로 구성하면서 교회에 관한 조항과 직분에 관한 신학적인 기초를 다루는 부분을 대폭 확장하였다(장수민, 2010: 556-57). 이상과 같은 약간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의 위치는 그대로 두어서 칼뱅의 기본적인 관점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1550년 제 4판(라틴어)

이 판은 이전에 출판했던 3판과 마찬가지로 21장으로 구성하였지만 처음으로 모든 장마다 절로 세분하여 독자들이 읽는데 도움을 주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성경과 그 권위, 성자(聖者)와 형상에 대한 예배에 대하여 다소 첨가했으며, 양심에 대해서는 설명을 덧붙였다(신복윤, 2005: 57). 역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첫 두 장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5) 1559년 최종판(라틴어)

1558년부터 칼뱅의 건강은 극도로 쇠약해졌다. 학질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되었고, 10월부터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장수민, 2010: 946-47). 해가 바뀌어 1559년이 되자 제네바시의회는 비로소 그에게 시민권을 주었고, 6월이 되면서 8개월간 중단했던 설교를 다시 시작하였으며, 8월 1일에는 다섯 번째로 개정된 기독교 강요의 서문을 썼다.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중에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을 집필했는데, 이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며 작업한 저작으로써 서문에 “작년 겨울 사 일열(四日熱)에 걸려 죽음의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병세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한층 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 책을 다 써내었다.”고 밝혔다. 내용면에서도 3판과 4판이 21장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4배나 늘어난 모두 4권 80장으로써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계획에 따라 완전히 개정했으며 많은 부분을 증보했다(신복운, 2005: 57-58). 이 최종판의 제목은 이러한 칼뱅의 의지와 노력을 설명하느라 다음과 같이 길어졌다. “새롭게 4권으로 제시되고, 가장 적합한 순서와 방법에 따라 장들로 나누어지고, 또한 정당하게 새로운 책으로 간주되어야 마땅할 정도로 새로운 첨가들에 의해 증보된 기독교 신앙의 강요”.⁷⁾ 다음은 이 최종판의 개요이다(장수민, 2010: 1008-24).

제 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 1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1-5장)
- 2부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서의 성경(6-10장)
- 3부 왜곡된 신관에 대한 성경의 비판(10-12장)
- 4부 하나님의 본질: 삼위일체(13장)
- 5부 하나님의 창조(14-15장)
- 6부 하나님의 섭리(16-18장)

제 2권 처음에는 율법 아래서 조상들에게 알려지고, 다음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 1부 타락한 인간(1-5장)
- 2부 율법과 복음에 계시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6-11장)
- 3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12-17장)

제 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오며, 어떤 효력이 뒤 따르는가?

- 1부 성령의 역사와 신앙(1-5장)

7) 이 최종판을 1560년에 칼뱅 자신이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였고, 1561년에는 Thomas Norton에 의해서 영어로 번역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에야 번역 발간되었다(장수민, 2010: 976-97).

- 2부 그리스도인의 삶(6-10장)
- 3부 이신 칭의(1): 정의와 경계(11-14장)
- 4부 이신 칭의(2): 적용과 실천(15-18장)
- 5부 그리스도인의 자유(19장)
- 6부 그리스도인의 기도(20장)
- 7부 예정론(21-24장)
- 8부 부활론(25장)

제 4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초청하시며 거기에 머물게 하시는 외적인 수단과 목적

- 1부 교회의 본질과 통치(1-7장)
- 2부 교회의 권세(8-13장)
- 3부 성례론(14-19장)
- 4부 세속 정부 혹은 국가 통치(20장)

이상의 개요는 사도신경의 구조를 참고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그리고 교회의 순서로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신복윤, 2005: 58). 인간의 이해를 중심으로 보면 그동안 줄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음으로 다루어졌지만 최종판에서는 인간의 지식에 대한 제목이 표면적으로는 사라졌다. 그렇다고 인간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제 1권의 5부 하나님의 창조에서 15장 전체가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으며, 제 2권의 1부(1-5장) 전체를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제 3권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제 4권에서는 은혜로 구속받은 인간이 계속해서 은혜에 머무는 수단과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다루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인간에 대한 지식은 기독교 강요의 전반으로 확산 및 분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칼뱅은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을 소개하고자 하는 동기로서 기독교 강요를 집필했다.

2. 칼뱅의 인간론 연구사

전통적으로 칼뱅의 연구자들은 그의 신학(theology)에 주된 관심을 가져 온 것이 사실이다. 신복윤은 칼뱅의 신학에 관한 책을 저술하며 머리말에서 그의 신학을 지배하는 원리는 “인간론적이거나 구원론적이거나 또는 교회론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이다.”라고 밝혔으며, 본 내용에서는 칼뱅의 사상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바는 하나님 사상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 미친다.”고 서술하였다(신복윤, 2010: 24). 그래서 그의 인간론(anthropology)에 대해서는 학자들에게 큰 관심의 영역이 되지 못하다가 20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목할 만한 연구물이 발표되었다.

그것은 1949년에 출판된 토란스(T. F. Torrance)의 연구로써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칼뱅의 견해를 4장에 걸쳐서 자세히 다루었는데,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칼빈의 생각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칼빈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지닌 존재, 즉 인간 안에서 인간이 이것이나 저것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지에 대한 영적 관계로 생각하였다고 말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지에 대한 영적 관계로 생각하였다고 말하여야 한다.”⁸⁾

그 이후로는 1956년에 니젤(Wilhelm Niesel) 역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칼뱅의 이해에 집중하며 토란스와 비슷한 해석을 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그의 주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의존한다.”⁹⁾고 주장하였다. 한편, 바벨로츠키(Gerd Babelotzky)는 1977년 연구에서 “틀림없이 칼빈의 저작 안에, 무엇보다도 기독교 강요 안에 이러한 암묵적 인간론이 존재한다. 모든 우리의 지혜는 기독교 강요의 첫 문장이 이미 공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지식과 자기 지식을 포함하며, 그런 자기 지식에 대한 서술이 이 저작의 네 권 모두에 걸쳐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⁰⁾

1988년에 출판된 엔젤의 연구는 이전의 연구들을 비판하거나 더욱 발전시켰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 중심으로 이해했던 토란스와 니젤의 주장을 비판하며 관계적인 동시에 실체적인 것임을 강조하였고, 자신의 관점주의(perspectivalism) 학설에 근거하여 보다 역동적이면서도 관점적인 구조 속에서 칼뱅의 인간론을 이해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인간에 관한 칼빈의 모든 논평들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 사이에 있는 기본적 구별이다. 이 관점들 각각은 인간 피조물을 보고 평가하는 서로 다른 지점을 나타내며 자아에 대한 서로 다른 지식으로 인도한다.”¹¹⁾

한편, 국내의 학자들은 앞에서 살폈던 국외의 연구들보다 훨씬 늦게 칼뱅의 인간론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최홍석은 1990년의 연구에서 구속사의 진전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의 다양한 면모를 조명하면서 칼뱅의 인간의 인해 및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최홍석, 1990: 128-52).

같은 해에 조동호는 칼뱅 신학의 대표적인 개념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논의에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인간론을 내세우고 있음을 기술하였다(조동호, 1990: 14-28).

신복윤은 1995-96년의 연구에서 역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를 논하였으며, 칼뱅이 언급했던 육체와 영혼이라는 구조적 성질을 가진 인간에 대하여 설명한 뒤 범죄한 인간, 은혜언약 안에 있는 인간 등의 순서로 내용을 전개하였다(신복윤, 1995: 329-38, 1996: 161-73).

8) T. F.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Publishers. 1977), p. 79-80.(이양호, 1997: 123에서 재인용)

9) Wi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ans. Harold Knight(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6), p. 68-69.(이양호, 1997: 123에서 재인용)

10) Gerd Babelotzky, *Platonische Bilder und Gedankengänge in Calvins Lehre vom Menschen*(Wiesbaden: Frasz Steiner Verlag GMBH, 1977), p. 77.(이양호, 1997: 121에서 재인용)

11) Mary Potter Engel, *John Calvin's Perspectival Anthropology*(Atlanta, Georgia: Scholars Press, 1988), p. xi-1.(이양호, 1997: 124-25에서 재인용)

이양호는 1997년의 연구에서 역시 하나님 형상을 중심으로 칼뱅의 인간론을 시작하여 일부 학자들이 타락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보았던 것과는 다르게 심하게 일그러졌지만 여전히 그 흔적은 남아있음을 강조하였다(이양호, 1997: 122-40).

이오갑은 1998년의 연구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중심요소를 이해하고, 그 요소와 관계된 여러 가지 표현들과 상호 관계성을 살피는 방식으로 칼뱅의 인간 이해를 다루었다(이오갑, 1998: 109-28).

김정훈은 1999년의 연구에서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타락 전 인간의 순수한 모습과 타락 후 철저히 부패한 인간상을 비교하였고,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인간에 대하여 소개하였다(김정훈, 1999: 138-68).

권호덕은 2000년의 연구를 통해서 칼뱅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의 본체를 반영하는 실체라는 관점에서 사용했다고 밝히며, 하나님의 본체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독교 강요의 구성으로써 설명한다(권호덕, 2000: 200-44).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국내 학자들의 연구는 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의 틀 안에서 칼뱅의 인간론을 시작하여 타락 전과 타락 후의 모습을 비교하는 내용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뱅의 인간 이해

칼뱅은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1559년) I권 15장에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임을 밝히고, II권 1-5장에서는 타락의 양상과 타락이후의 인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 이후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내용의 구성에 따라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타락 이후에도 일부의 재능을 가진 인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등의 순서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창조된 인간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칼뱅은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특별한 존재로써의 핵심적인 이유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으로 규정한다(*Inst.*, I. 15. 3). 창세기 1장에서는 ‘형상’이라는 단어와 ‘모양’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데(창1:26,27), 그는 이 두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동의어로 해석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 속에 자기의 모양의 특징을 새겨 넣으심으로써 자기를 반사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에 인간이 가장 완전하면서도 탁월한 창조물임을 드러내는 근거라고 설명한다(*Ibid.*).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기에 처

음의 모습은 바른 이해력을 충분히 소유했고, 감정을 이성애 종속시켰으며, 모든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할 수 있었다(Ibid.). 이는 어거스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에 대하여 의지의 자유, 즉 자유로운 도덕적 기능과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과 의를 소유했었다고 주장했던 것을 동의하는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칼뱅은 “이러한 완전한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였더라면 자유의지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말한다(Inst., I. 15. 8).

하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데, 이를 하나님의 형상적 측면으로 설명하면 전적으로 소멸되거나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부패하게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을 뿐이다. 이어서 칼뱅은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형상이시며, 성도들이 결국에는 그 형상과 같게 될 것인데 참된 경건, 의, 순결, 지성 등의 영역이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Inst., I. 15. 4). 그렇다면 경건이나 의, 순결, 지성 등은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된 것으로써 “처음에는 지성의 빛과 마음의 바름과 모든 부분의 건전함에서 뚜렷이 빛나고” 있었지만 타락과 함께 심각하게 부패 되었거나 “거의 지워졌기 때문에, 파멸 후에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혼란하고 이지러지고 오염된 것뿐이다”(Ibid.).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시켜서 가장 완전한 창조물임을 의미하고(Inst., I. 15. 3),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로써 하나님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영적인 존재임을 가리킨다(Inst., I. 15. 4).

(2) 영혼과 육체의 구조적 특징을 가진 인간

칼뱅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 지혜, 선을 보여 주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두드러진 표본”으로 창조되었기에 죄에 대하여 창조주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내용으로써 인간에 대한 지식을 언급하기 시작한다(Inst., I. 15. 1).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영혼과 육체의 구조적인 특징을 가진 존재임을 밝힌다(Inst., I. 15. 2). 그렇다면 칼뱅이 말하는 영혼과 육체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칼뱅은 영혼의 특징에 대하여 불멸적이면서도 창조함을 받은 실재를 의미하며, 인간의 보다 고귀한 부분(아마도 육체와 비교했을 때)으로써 종종 영(靈, spirit)으로 불린다고 서술하였다(Inst., I. 15. 2). 또한 인간 마음에 부여된 그 탁월한 여러 은사들은 신적인 무엇이 영혼에 새겨져 있다는 증거로써 지성의 좌소이며(Ibid.),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적 좌소이기도 하다(Inst., I. 15. 3). 한편, 이 영혼은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지만 “육체를 거소(居所)로 여기며 거기에 머물며, 육체의 모든 부분에 생기를 넣어 주고, 육체의 모든 기관을 각각의 행동에 적절하고 유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수위(首位)를 차지하며, 그리고 지상 생활의 의무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자극”하는 기능을 한다(Inst., I. 15. 6). 이는 영혼과 육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어서 칼뱅은 영혼의 인식 및 욕구 기능들을 각각 3개씩 설명하는데, 공통 감각에 의해 이

해된 것들을 식별하는 공상력, 보편적 판단을 포함하는 이성, 이성이 산만하게 생각한 것을 집중적이며 조용한 명상 속에서 정관(靜觀)하는 오성(悟性) 등이 영혼의 인식기능이며, 거기에 일치하는 욕구기능으로써 오성과 이성이 제시하는 것을 추구하는 의지, 이성과 공상력에 의해 제시된 것을 포착하는 분노, 공상력과 감각에 의해 제시된 것을 파악하는 욕망 등이다(Ibid.). 이상과 같은 인간의 영혼은 지성(또는 오성)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상을 식별하고(지성), 식별한 것 중에서 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거나 그 반대의 것은 거절하게 된다(의지)(Inst., I. 15. 7).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칼뱅이 영혼을 육체보다 더 고귀하다고 표현한 것은 플라톤의 사상처럼 우등과 열등 또는 불멸성과 파멸성 등으로 비교하며 이해해서는 안 된다. 칼뱅은 영혼과 육체를 인간의 두 가지 본질로 이해하며 각각 자체의 특성을 유지하되 아무 혼란 없이 연합한다는 것을 다음과 밝힌다. “영혼은 신체가 아니며, 신체는 영혼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은 영혼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고, 신체에 대해서는 결코 해당되지 않으며, 또 신체에 대해서 하는 말이 영혼에는 결코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다.....마음의 특색을 신체에, 또 신체의 특색을 영혼에 옮기는 때가 있다.....이런 표현들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된 한 인격(person)이 있으며, 이 인격의 기반으로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본질이 있어서 한 인격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Inst., II. 14. 1) 여기서 육체와 무관한 영혼의 일에 대한 예로써 칼뱅은 “하늘과 땅을 관찰하며, 과거와 미래를 결합시키며, 오래 전에 들은 것을 계속 기억에 담아 두며, 즐겨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생각해 낼 수 있는 영혼의 그 다방면의 민첩함, 그리고 훌륭한 것들을 발명해 내며 많은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 것 등을 언급한다(Inst., I. 5. 5). 아울러 육체 또한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 좌소임을 밝힌다(Inst., I. 15. 3). 이것은 칼뱅이 육체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며 인간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리하면 칼뱅은 영혼과 육체의 구조적 특징을 가져서 각각의 고유한 기능들이 있지만 혼란 없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전인(全人, whole-personality)으로서의 인간관을 갖고 있다.

2. 타락한 인간

(1) 타락의 성격과 범위

첫 사람인 아담의 죄를 단지 탐욕에 의한 무절제로 해석하는 것은 유치할 뿐만 아니라 타락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칼뱅은 교만이 모든 악의 처음이었다는 어거스틴의 말에 동의하며 아담이 야심을 가지고, 의지적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마땅하면서도 바른 한계를 넘은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반역한 것이 타락의 근본적인 성격이라고 규명한다(Inst., II. 1. 4). 이러한 타락으로 인해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어서 영적인 생명이었던 인간이 창조주와 멀어지게 되어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다(Inst., II. 1. 5).

그런데 첫 사람인 아담은 시조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뿌리였기에 그의 부패와 파멸은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인류전체의 부패와 파멸로 이어졌다(Inst., II. 1. 6). 이에 대해서 칼뱅은 아담에게서

시작한 부패는 선조로부터 후손에게 전달되어 끊임없이 흘러갔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의 책임을 아담에게 지울 수 없다고 부연한다(*Inst.*, II. 1. 7). 왜냐하면 아담이 전염시킨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Inst.*, II. 1. 8). 결국 아담의 죄는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 각자의 죄이다.

그런데 아담의 죄인 원죄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가(轉嫁)되는가에 대해서 칼뱅은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 죄가 부모로부터 유전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며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셨던 천품(天稟)인 은사들을 거두어가셨는데, 그것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 생존하는 모든 인류도 그 천품을 잃게 되었음을 의미한다(*Ibid.*).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취할 권리도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부모에게서 자녀가 부패했고, 자녀는 다시 그 후손에게 대대로 병을 옮기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아담 안에서 시작된 부패는 선조로부터 후손에게 전달되어 끊임없이 흘러온 것이다.”(*Ibid.*)라는 표현을 보면 유전설의 입장과 혼동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오염의 원인이 “육이나 영혼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은사로 주셨던 것을 후손들을 위하여 얻었다가 동시에 잃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데 있는 것이다”(*Ibid.*)라고 말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예정으로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은 비단 후손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다. 인간이 관리하며 사용하도록 먼저 창조되었던 모든 창조세계에까지 퍼지게 되었다. 그것들은 “확실히 사람이 받을 벌의 일부분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 전체에 편만한 저주는 아담의 죄에서 흘러 퍼진 것이다”(*Inst.*, II. 1. 5).

이상과 같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 “받은 것 이상을 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 그 위대하고 풍성한 은혜를 파렴치하게 경멸하여”(*Inst.*, II. 1. 4)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함으로 발생하여 모든 인류에게로 전가되었고, 모든 창조세계도 부패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다.

(2) 타락의 결과와 양상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발생한 원죄는 인간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로써 영혼의 모든 부분에 만연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들고, 성경에서 육체의 일로 명기된 최악된 행위들을 하게 만든다(*Inst.*, II. 1. 8). 곧 죄가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을 점령했다. 저급한 욕망의 유혹을 받으며 불신앙이 바른 지성의 보루를 점령했고, 교만이 심정의 밑바닥까지 침투한 것이다(*Inst.*, II. 1. 9).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 전체가 마치 홍수를 만난 듯이 머리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압도되어 죄를 면한 부분은 하나도 없으며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은 모두 죄로 돌려야” 하는 것이 인간의 형편이다(*Ibid.*).

칼뱅은 타락한 이후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한다. “저 하늘 형상이 그에게서 말소된 후에.....처음에 그를 훌륭하게 장식했던 지혜와 힘과 성결과 진실과 공의가 없어지고 그 대신 무지와 무력과 불결과 허영과 불의 등의 가장 추악한 병들이” 생겨났다(*Inst.*, II. 1. 5). 이는 죄로 인하여 이전의 선하고 순수했던 본성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영혼의 우수성과 존귀성, 특히 빛나는 부분이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히 부패”하게 된 것이다(*Inst.*, II. 1. 9).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본성에서 타락이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타락은 처음부터 본성 안에 있었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첨가된 성질이다(*Inst.*, II. 1. 11).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가장 작은 것도 기뻐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귀한 피조물인 인간을 적대시하는 이유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바로 그 부패함 때문이며, 부패한 본성을 선천적으로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Ibid.*).

이상과 같은 전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사망에 처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만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새로운 본성을 입어야 할 형편이 된 것이다(*Ibid.*). 그럼에도 칼뱅은 타락한 인간의 실체가 모든 지각이나 의지가 사라져서 짐승과 동일한 수준이 되었다기보다는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노예의 신분으로 비유한다(*Inst.*, II. 2. 1).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영적 능력, 곧 영원한 구원을 얻을 희망으로 받은 천품들을 빼앗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영혼의 복스러운 생활에 속하는 성질들이 온통 소멸된 상태이다(*Inst.*, II. 2. 12).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타락상에 대하여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려는 경향과 반대로 여전히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려는 경향이 생기는데, 인간에게 남아 있는 선은 전혀 없으며 극히 비참한 궁핍이 사방에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는 사실 외에 스스로를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기에 오직 타락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적어도 자기의 빈곤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Inst.*, II. 2. 1).

3. 타락이후에도 일부의 재능을 가진 인간

칼뱅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초자연적인 천품은 제거되었고, 자연적인 천품은 부패하게 되었다는 어거스틴의 말에 동의하면서 인간 지성의 건전성과 마음의 성실성이 동시에 제거되었으며, 이해력과 판단력과 의지력이 다소 남아 있긴 하지만 무력할 뿐 아니라 깊은 암흑 속에 빠진 상태라고 설명한다(*Inst.*, II. 2. 12). 좀 더 살펴보면, 인간이 선악을 구별하며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으로써의 이성인 자연적인 천품이기에 완전히 말소된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약화되고 일부분은 부패되어 기형적인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이다(*Ibid.*). 여기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아직도 어느 정도 희미한 빛이 번뜩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서 동물과 달리 이성적 존재로서 기능할 수 있다. 물론 그 빛은 짙은 무지가 덮어 질식시키므로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다. 인간 본성과 떼어 수 없는 의지 역시 사악한 욕망에 긴밀히 결속되어 있어서 바른 일을 추구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Ibid.*).

이상과 같이 타락한 인간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며, 진리를 동경하지만 곧 허무한 데 빠질 수밖에 없는 지성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음은 사실이다(*Ibid.*). 이러한 지성의 활동은 지상의 일, 현세의 일에 국한되어 작용할 뿐이다. 인간은 처음부터 사회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사회생활을 육성하며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 타락한 지성의 활동은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 여전히 활발하게 빛을 발하여 사회생활의 공정성과 질서유지 등에 힘쓰고자 한다. 또한 학술과 공예에 대해서도 인간의 총명이 확

인된다(*Inst.*, II. 2. 13). 그래서 자연을 훌륭하게 관찰하고, 변론술을 가르치며, 의학과 수학을 발전시켜 인간사회의 유익을 도모하는 등의 문화적 업적을 남기는 것이다. 칼뱅은 “우리는 깊은 존경심을 갖지 않고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대인들의 저술을 읽을 수 없으며, 그들의 탁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탄하는 것이다”고 말한다(*Inst.*, II. 2. 15).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타락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며, 각자에게 다른 재능들이 부여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Inst.*, II. 2. 14). 또한 그 재능들은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훌륭한 은혜로써 모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Inst.*, II. 2. 16).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법칙에 따라 각 종류에 주신 그 성격에 맞도록 재능을 주시기에 성도들이 자연과학과 논리학과 수학과 그 밖의 학술의 도움을 받으며 불신자들의 활동과 봉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타락한 지성으로 인한 재능이나 지식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안정하고 무상(無常)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Ibid.*).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께 다해야 할 의무를 기록한 첫째 돌판의 내용¹²⁾을 준수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무력하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윤리를 다루는 둘째 돌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경우에 역시 무력하게 작동한다(*Inst.*, II. 2. 24).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인간의 고유한 본성인 이성은 타락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남아 있어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비록 지상과 현세에 국한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에는 전혀 무력할 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소명에 따라 특별한 활동을 하도록 감동하심이다(*Inst.*, II. 2. 17).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재능이나 지성적 활동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경배를 드려야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타락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심하게 부패했고, 왜곡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4.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¹³⁾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구세주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알리셨는데, 아담에게 처음으로 계시하셨다(창3:15). 이런 점에서 칼뱅은 아담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하의 족장들은 이와 같은 말씀의 조명으로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참여했으며, 이 참여에는 영생의 축복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Inst.*, II. 10. 7). 한편,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너무도 숭엄하고 높으시기 때문에 땅에서 기어 다니는 구더기 같은 죽을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Inst.*, II. 6. 4).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통한 인간의 구원계획을 질서정연하게 계시하셨는데, 처음 아담에

12) 칼뱅은 십계명을 기록한 두 개의 돌판 중에서 첫째 판에는 1-4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둘째 판에는 5-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Inst.*, II. 8. 12).

13) 이 표현은 신복윤의 글에서 인용하였다(신복윤, 2005: 160).

게 소개되었을 때는 희미한 불꽃이 비치는 정도였지만 세월이 흘러 완전한 계시의 날이 다가오면서는 점점 빛이 밝아져 결국에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를 완전히 비추신 것이다(*Inst.*, II. 10. 20). 그리스도는 완전한 증보자가 되셔서 타락함으로 정죄를 받아 멸망 가운데 있던 인간을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Inst.*, II. 16. 1).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모든 불의 가운데 처했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다. 이는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으셨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제시된 속죄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일소하심으로 인간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Inst.*, II. 16. 3).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유일한 증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계획을 완성하신 구원을 타락한 인간의 지성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 오직 성령께서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조명(照明)할 때에 구원의 진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성령은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Inst.*, III. 2. 33). 이러한 성령의 권능은 타락 가운데 있던 인간의 지성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해력을 초월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곧 성령의 조명을 받은 인간의 이해력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Inst.*, III. 2. 34). 또한 성령의 권능은 인간의 타락한 의지에도 작용하여 바른 일을 사랑하고 열렬히 원하며 그것을 추구하려고 분발하며 움직이도록 역사하신다. 이것은 타락했기에 악했던 인간의 의지가 선한 의지로 변하는 이른바 의지의 전향이 일어나는 것이다(*Inst.*, II. 3. 6). 이상과 같이 인간 영혼의 두 본성인 지성과 의지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새로워진다.

한편, 영혼과 함께 인간의 2대 구조적 특징인 육체 또한 구원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 곧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초로 구원의 사람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러한 몸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Inst.*, III. 25. 3). 칼뱅은 몸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현재의 몸은 썩어서 없어지고 새로운 몸으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썩는 성질을 버리고 썩지 않는 성질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성도들의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멸망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하는 것이다(*Inst.*, III. 25. 8).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고 보내신 유일한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완성된 속죄의 효력을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믿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성령의 권능은 영혼의 두 요소인 지성과 의지를 새롭게 하여 진리를 향하도록 안내한다. 육체 또한 장차 다시는 썩지 않을 영광스러우면서 탁월한 성질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Inst.*, III. 25. 10).

IV.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뱅의 인간 이해와 교육적 함의

칼뱅은 기독교 강요의 헌사에서 저술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밝혔다. 첫째는 당시 개혁신앙을 따르는 개신교인들에게 믿어야 할 내용을 가르쳐 주는 지침서로서 사용되어지기를 바랐던 것이며, 둘째는

개혁신앙을 박해하는 프랑스의 왕에게 과연 개인교인들이 믿는 내용을 살피주기를 바라는 변증서로서의 역할을 기대한 것이다(김재성, 2003: 102). 이러한 사실은 칼뱅의 대표적인 저작이면서 종교개혁의 사상을 집대성했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회의 신앙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저서로서의 기독교 강요가 충분히 교육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제 앞에서 살폈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뱅의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의 대상인 인간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갖게 한다. 모든 교육 이념의 바탕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현재보다 발전된 상태와 삶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을 형성적 활동(a formative activity)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기원이나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의견에 따라 '보다 나은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해는 다를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교육의 목표와 과정과 평가 등의 내용이 다르게 결정될 것이다. 칼뱅은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명확히 밝힌다. 또한 창조세계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가장 존귀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소개한다(*Inst.*, I. 15. 3). 여기에 오늘날의 사람들이 구분하는 피부색의 구별이나 신분 및 개별 능력의 차이나 성별이나 심지어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비록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Inst.*, II. 2. 16-17) 인간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케 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찮은 흙을 빚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Inst.*, I. 15. 1)과 스스로의 의지로써 타락하여 영원한 죽음에 처하였기에 교만할 수 없고, 언제나 겸손해야 함을 강조한다(*Inst.*, II. 2. 10). 이러한 칼뱅의 인간이해는 교육의 대상인 인간이 존엄성을 가졌으면서도 겸손해야 하는 존재임을 교훈한다.

둘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간의 창조목적과 다양한 재능에 대한 이해는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교훈을 준다. 칼뱅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를 관리하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Inst.*, I. 14. 20), 타락한 이후에도 그러한 능력의 일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Inst.*, II. 2. 14). 이러한 점은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개인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이기적인 목적을 벗어나 하나님과 창조세계를 섬기며 자기에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돕는 활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또한 교육의 내용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와 창조세계의 특성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안내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크게 부각되고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과 환경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진정한 이웃이라는 개념과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환경 구축을 힘쓰는 것이 본질임을 교훈한다.

셋째, 인간의 구조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와 개인이 가진 능력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은 역시 교육의 내용과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에 대하여 시사점을 준다. 칼뱅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구조적 특징을 가진 전인적 존재이며(*Inst.*, I. 15. 2),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에게 재능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선물들이라고 소개하였다(*Inst.*, II. 2. 14). 이러한 내용은 교육의 내용과 과정이 전인적인 계발이 이루어지도록 편성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을 교훈한다. 동시에 개인마다 이해력의 차이가 있고, 소질이나 특기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교수(教授)의 방식에도 획

일적인 방법을 벗어나 다양한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이 진행된 다음 그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서 평가를 할 때에도 전인적인 성장에 대해서, 그리고 개별적인 특성의 배려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을 안내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학급의 인원수나 교사의 업무 상황 등 교육의 행정적인 제반 여건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혜언약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한 관점은 교육의 주체와 한계점을 설정한다. 칼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구원계획을 주권적으로 진행하시며,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계획을 성취하셨으며, 성령의 권능과 역사로써 그 구속의 효력을 개인들에게 적용하신다고 밝혔다(*Inst.*, III. 2. 33). 그래서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만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재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일반적으로 교육의 3요소라고 할 때 교사와 학생과 교육과정(교재)을 언급하는 것과는 달리 성령의 교육적 역할에 대해서 깊은 시사점을 준다. 동시에 교육의 주체자에 대해서도 교사가 교육과정을 진행하지만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에 대해서 늘 인지하며 도움을 구하여야 할 것을 교훈한다. 그래서 인간의 보다 나은 상태로의 안내와 활동이라는 교육 본연의 정의를 되짚어볼 때, 과연 인간이 얼마나 참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겸손의 자세를 갖게 한다. 곧 인간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거나 완전한 모습으로 안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인정하게 만든다.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V. 결론 및 요약

지금까지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칼뱅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이어서 교육적 함의를 살펴보고 있다. 분명 칼뱅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 유익하면서도 특별한 일군이였다. 특히 그의 대표적 저작인 기독교 강요는 1539년 그의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라틴어로 처음 저술하기 시작하여 1559년 라틴어 최종판이 나오기까지 무려 23년 동안 4번에 걸쳐서 증보 개정된 역작이다. 판을 거듭할 때마다 내용과 구성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저술의 바탕이 되는 신앙과 사상은 놀라우리만치 일관적이였다.

이 책은 칼뱅 자신이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참되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회심했기에 그러한 주제를 자연스럽게 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야 인간은 자신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로써 첫 내용을 시작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기독교 강요가 대개 신학서적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교육적인 목적과 배경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책의 앞부분에 기록된 헌사에는 개신교인들에게 개혁신앙을 가르치고자 함과 개신교를 박해하는 왕에게 개혁신앙을 알리고자 하는 2중 목적이 드러나는데, 이는 기독교 강요를 교육적인 관점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칼뱅은 개정 증보판을 낼 때마다

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책의 앞부분에 배치하고 있어서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다만 1559년 라틴어 최종판에서는 이전까지 제목으로 사용하던 인간에 대한 지식이라는 표현이 사라졌지만, 내용 속에서는 여전히 강조되며 오히려 전체의 내용으로 확대시키고 있음이 드러났다.

칼뱅은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며 가장 고귀한 창조물임을 드러낸다. 동시에 하찮은 흙이 재료로 사용되었기에 스스로는 교만할 수 없는 특성을 지녔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히 예배하면서도 창조세계를 향해서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울 같은 정체성을 가진 인간임을 강조한다. 또한 영혼과 육체라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로 이해하였고, 영혼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도 밝혔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존재임을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하며, 본래 지니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심하게 부패하고 왜곡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에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삶에 국한되지만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은사들을 남겨두셨다. 이런 점에서 칼뱅은 대단히 절망스럽고도 우울한 인간상과 함께 적극적이면서도 일부의 가능성을 가진 긍정적인 인간상을 균형 있게 소개한다.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유일한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며 자신의 죽음을 통해 속죄를 완성하심으로 구속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이에 성령께서 구속의 효력을 각 개인들에게 권능으로써 적용하심으로 믿음이 생기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성이 새로워지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육체마저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썩어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뱅의 인간이해는 교육의 대상인 인간을 균형 있게 바라보도록 교훈하며, 교육의 내용과 과정과 평가와 행정 등 제 영역에 선한 시사점을 준다. 그리고 인간의 보다 나은 상태를 지향하는 교육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한계점도 갖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칼뱅과 기독교 강요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개혁주의 교육과 학교의 사상적 뿌리로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파를 초월한 모든 기독교 교육과 학교에도 선한 사상적 기반이 될 것이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한다.

참 고 문 헌

- 권호덕(2000). “거울의 관점에서 본 칼빈의 하나님 형상 이해.” 한국개혁신학회. 『한국개혁 신학 논문집』. 제 8권. 200-244.
- 김재성(2003).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 김정훈(1999). “칼빈의 인간관.” 광신대학교. 『정규오목사 은퇴기념 논총』. 138-168.
- 신복윤(1993).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 (1995). “칼빈이 본 인간(1).” 합동신학교. 『신학정론』. 제 13권. 제2호. 329-338.
- (1996). “칼빈이 본 인간(2).” 합동신학교. 『신학정론』. 제 14권. 제1호. 161-173.
- (2005).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 (2013). 『존 칼빈』.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 이양호(1997). “칼빈의 인간론.”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신학논단』. 제 25집. 122-140.
- 이오갑(1998).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론.” 한국조직신학회. 『조직신학논총』. 제 3집. 109-128.
- 장수민(2006). 『칼빈의 기독교 강요 분석Ⅱ』. 서울: 칼빈아카데미.
- (2010). 『개혁교회 창시자 존 칼빈 신학과 목회』. 서울: 칼빈아카데미.
- 정영찬(2007).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에 대한 개혁주의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정준모(2003). 『칼빈: 교리교육과 현대 교육목회론』. 서울: 은혜출판사.
- 조동호(1990). “요한 칼빈의 인간론 소고.” 한성신학교. 『한성신학교 논문집』. 1권. 14-28.
- 조성국(2002). 『기독교 인간학: 하나님의 형상인 전인적 인간- 개혁철학의 관점에서』. 부산: 고신대학교부설기독교교육연구소.
- (2003). “칼빈의 신앙교육에 있어서의 경건.” 한국기독교교육학회. 『기독교교육논총9』. 237-266.
- 최정호(2010). “칼빈의 인간론에 관한 개혁주의적 이해-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칼빈대학교.
- 최홍석(1990). “칼빈의 신형상론.” 신학지남사. 『신학지남』. 통권 225호. 128-152.
- 황성철(2002). 『칼빈의 교육 목회』. 서울: 이레서원.
- Calvin, John(1536).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양낙홍 역
(1994). 『기독교 강요(초판)』.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1559).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역
(1995). 기독교 강요. 서울: 생명의말씀사.
- Godfrey, W. Robert(2009). *John Calvin: Pilgrim and Pastor*. 김석원 역(2009). 『칼빈: 순례자와 목회자』. 서울: 부흥과개혁사
- McNeill, John T.(1954).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정성구. 양낙홍 역
(1991).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Selderhuis, Herman J(2009). *John Calvin: A Pilgrim's Life*. 조승희 역(2011). 『칼빈』. 서울: KOREA.COM.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인간 이해와 교육적 함의에 대한 논찬

김윤권 (아신대 겸임교수)

기독교교육을 정의하고 특징짓는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인간에 대한 성경적 이해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다양성으로 인해 기독교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종종 혼란에 빠지게 된다.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만큼 인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며 나아가 그 적용은 더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 학교교육은 인간에 대한 이해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주 그리고 정확히 우리가 가진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비추어 정영찬 박사의 본 논문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논찬자는 먼저 본 논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강요」에 대한 교육적 접근의 의의를 들 수 있다. 정영찬 박사도 언급했듯이 칼뱅의 「기독교 강요」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계승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학과 세계관의 뿌리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개혁주의 전통의 신앙 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 개혁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이 이러한 문화 개혁의 한 영역임을 고려할 때, 기독교교육과 관련하여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정 박사의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많은 학자들이 칼뱅의 인간론 연구를 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의 틀 안에서 칼뱅의 인간론을 시작하여 타락 전과 타락 후의 모습을 비교하는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실질적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폭넓은 이해와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순전히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칼뱅의 인간론을 기독교교육의 상황으로 풀어내고자 한 시도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기독교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총론적이거나 이론적인 접근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들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을 해결할 하나의 방법으로 정영찬 박사의 접근과 같은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교육 특히 기독교학교교육의 인간론에 대한 건강한 토대를 제공했다는 의의를 들 수 있다. 교단 위주의 기독교교육은 교단을 대표하는 기독교학자들의 인간론을 거의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기독교학교의 인간론은 대부분 화란 계통의 개혁주의 학자들의 주장과 북미의 대중적인 기독교교육학자들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결국 기독교교육과 관련하여 각 공동체는 자신들의 입장과 관련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인간 이해는 상황과 주체에 따른 여러 형태의 기독교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과 동시에 너무 좁은 이해 속에 갇힐 수도 있는 단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한 두 학자의 주장을 지나치게 수용하기 보다는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인간 이해의 기초 위에서 기독교교육을 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신뢰받고 있는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연구하여 밝힌 인간에 대한 성경적 내용들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칼뱅의 인간론을 구체적인 교육적 내용으로 연결시킨 의의를 들 수 있다. 정영찬 박사는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그 속에 나타난 성경적 인간관의 의미를 교육적 상황으로 풀어내고 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한 칼뱅의 주장을 통해 학생들의 존엄성과 겸손을 다루고 있으며, 창조세계를 관리하라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과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의해 창조된 진정한 이웃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칼뱅이 주장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구조적 특징,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연적 천품에 대한 반응으로 기독교교육의 교육과정과 평가의 적용점을 제안한 것은 적절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간과되기 쉬운 기독교학교교육 안에서의 성령의 역할과 의미를 칼뱅의 주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기독교 강요」를 매우 세부적인 교육적 활동과 연결시키려는 발제자의 의도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유익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풍성한 토론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며 논찬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칼뱅의 인간 이해와 그것의 교육적 함의에 대한 구체적인 발제자의 논의가 의미 있음에도 좀 더 실제적인 교육적 상황을 들어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발제자의 교육의 실천 경험에 비추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기에 더 욕심을 갖게 된다. 칼뱅의 주장을 수용한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의 실천으로 학생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과정과 평가의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 논의했다면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논문의 실제적인 독자들이 기독교사들이라면 그 아쉬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혹 지면의 부족으로 다루지 못했다면 평상시 발제자가 가지고 있던 기독교교육의 구체적인 생각들을 칼뱅의 「기독교 강요」와 관련하여 어떻게 정리했는지 궁금하다.

둘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의도를 듣고 싶다. 발제자는 논문에서 신윤복의 글을 인용하여 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리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고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완성된 속죄의 효력을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믿게 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성령의 권능은 영혼의 두 요소인 지성과 의지를 새롭게 하여 진리를 향하도록 안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교육 특히 기독교학교교육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성령과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의 연결은 그다지 선명해 보이지 않는다. 은혜 언약 안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일하심이 주는 낙관적인 분위기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을 때, 궁극적으로 기독교교육은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위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학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언약의 개념이 ‘언약의 자녀’와 관련이 있다고 볼 때,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과 ‘언약의 자녀’에 대해 발제자는 어떻게 정리했는지도 알고 싶다.